

R&D팀

---

## 2021년 7월 MICE 산업 동향

---

2021. 8.

## 목 차

---

|                                |    |
|--------------------------------|----|
| 1. 2020년 UIA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 ..... | 3  |
| 2. 해외시장 동향 .....               | 7  |
| 3. 국내시장 동향 .....               | 16 |

## 1. 2020 UIA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sup>1)</sup>

### 가. 개요

-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이하 UIA)은 세계 각국에 있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비정부·비영리 조직으로 매년 국제 협회 및 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제회의에 대한 정보를 A, B, C 타입으로 구분해 각 국가별·도시별 개최실적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발간함
  - 기존 통계 보고서 타입별 기준 : A 타입 - 1일 이상 열리는 국제기구가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  
B 타입 - 3일 이상, 300명 이상 참가 또는 전시회 동반 회의  
C 타입 - 2일 이상, 250명 이상 참가 또는 전시회 동반 회의
- 그러나, 2020년 UIA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면 행사 외에 온라인 행사와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병행) 행사를 통계 보고서에 함께 기재함

### 나. 2020 UIA 통계 보고서 분석결과

#### 1) 서울 및 주요 도시별 개최 실적 요약

- 서울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전년 대비 458건(약 75%) 감소해 150건이 인정되었으나, 6년 연속 세계 3위를 유지함
  - 1위: 싱가포르 780건, 2위: 브뤼셀 290건, 4위: 도쿄 122건
  - 2019년과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도쿄는 2019년 6위였으나, 2020년 4위로 순위가 상승했고, 작년 4위였던 파리는 8위(61건)로 순위가 하락함
  - 2019년 7위였던 마드리드는 22위(22건), 2018년 17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며 2019년 7위(293건)로 10위 이상의 성장을 보였던 방콕은 2020년 코로나 19의 여파로 23위(24건)에 그침
- 전년 대비 35%의 국제회의 개최실적이 감소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상위 10위권 도시는 전년 대비 평균 69%가량의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은 파리(84% 감소), 베를린(77% 감소)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임(표1)

1) 본 고는 국제협회연합(UIA)에서 2021년 6월 18일 발간한 '62nd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국제회의 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임



- 서울은 코로나19 초기 발생 지역인 아시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쿄(122건), 방콕(24건) 등 타 아시아 도시에 비해 높은 개최실적을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함
- 국내 타 도시들의 경우, 부산 20위(25건), 제주도 31위(17건), 인천 43위(14건)를 기록함

<표 1> 주요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및 순위 비교

| 순위 | 도시    | 2020년 | 2019년    | 증감율  |
|----|-------|-------|----------|------|
| 1  | 싱가포르  | 780   | 1,205(1) | △35% |
| 2  | 브뤼셀   | 290   | 963(2)   | △69% |
| 3  | 서울    | 150   | 609(3)   | △75% |
| 4  | 도쿄    | 122   | 305(6)   | △60% |
| 5  | 비엔나   | 109   | 325(5)   | △66% |
| 6  | 런던    | 101   | 217(8)   | △53% |
| 7  | 제네바   | 77    | 173(13)  | △64% |
| 8  | 파리    | 61    | 405(4)   | △84% |
| 9  | 바르셀로나 | 44    | 160(14)  | △72% |
| 10 | 베를린   | 43    | 192(11)  | △77% |

※2020년 건수 기준: 대면 행사, 온라인, 하이브리드 포함

<표 2> 주요 국가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및 순위 비교

| 순위 | 국가    | 2020년 | 2019년    | 증감율  |
|----|-------|-------|----------|------|
| 1  | 싱가포르  | 780   | 1,205(1) | △35% |
| 2  | 미국    | 438   | 750(4)   | △41% |
| 3  | 벨기에   | 338   | 1,094(3) | △69% |
| 4  | 한국    | 256   | 1,113(2) | △77% |
| 5  | 일본    | 225   | 719(5)   | △69% |
| 6  | 영국    | 186   | 418(8)   | △56% |
| 7  | 독일    | 162   | 418(8)   | △61% |
| 8  | 프랑스   | 141   | 665(6)   | △79% |
| 9  | 스위스   | 137   | 249(18)  | △45% |
| 10 | 오스트리아 | 135   | 417(10)  | △68% |



## 다. 2020 UIA International Congress Calender 분석결과

- UIA 홈페이지의 국제회의 캘린더에 업로드된 행사 건수와 통계 보고서의 건수는 상이하나, 통계 보고서에 인정된 건수(150건)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우므로, 통계 보고서 발간일(2021. 6. 18.)에 캘린더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행사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실시함

### 1) UIA 타입에 따른 구분

- 국제회의의 캘린더에 업로드된 2020년 1월~12월 서울 개최 실적은 총 202건이며, A 타입 129건, B+C타입은 33건과 참가자 정보를 알 수 없는 행사 40건이 집계됨
- 그러나, UIA는 코로나19로 행사 규모가 축소되고, 온라인과 하이브리드로 행사가 개최된 상황을 고려해 50명 이하 또는 1일간 진행한 행사도 A 타입으로 집계함
  - UIA는 62nd 통계 보고서에서 타입별 기준은 큰 의미가 없으며 편의를 위해 구분했음을 명시함

<표 3> 2020년 서울 개최 실적 타입별 구분

| 구분    | 건수  | 점유율    | 비고                |
|-------|-----|--------|-------------------|
| A타입   | 129 | 63.8%  | 국제기구명 있는 행사       |
| B+C타입 | 33  | 16.3%  | 300명 이상, 3일 이상 개최 |
| 기타    | 40  | 19.8%  | 참가자 정보 없음         |
| 총계    | 202 | 100.0% |                   |

### 2) 코로나 19로 인한 개최 유형별 분석

- 총 202건은 온라인 74건, 하이브리드 40건, 대면 행사(오프라인) 15건과 취소 및 연기된 행사 43건, 정보 확인이 어려운 행사 30건으로 분류됨
  - 온라인으로 개최된 74건은 유튜브와 줌을 플랫폼으로 이용한 비율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행사 자체 웹사이트 또는 주최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행사는 24%임
  -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에도 온라인 행사와 유사하게 유튜브와 줌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오프라인 행사 메뉴로 호텔, 대학교를 이용한 비율이 45%이며, 코엑스, 한국 프레스센터, 대한상공회의소 등도 활용됨
  -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행사는 물리적 이동에 대한 장벽이 낮기 때문에, 외국인을 포함한 총 참가 인원이 최소 100명에서 최대 2,000명으로, 참가자 인원 규모에 대한 폭이 넓음

- UIA는 정보 확인이 어려운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확한 개최 유형을 파악하여 국제회의 캘린더에 업로드 할 예정이라 밝힘

<표 4> 2020년 서울 개최 유형별 세부 정보

| 개최 유형 | 전체   | 대면 행사 | 온라인 | 하이브리드 | 취소 | 연기  | 정보없음* |
|-------|------|-------|-----|-------|----|-----|-------|
| 건수    | 202건 | 15건   | 74건 | 40건   | 9건 | 34건 | 30건   |

\* 정보 없음: 개최는 했으나, 세부 정보 파악이 어려운 행사

### 3) 주요 국제기구별 개최실적 현황 분석

- 2020년 4건 이상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국제기구별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7개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총 135건이나, 이 중 29%에 해당하는 39건만 인정됐으며, 2019년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임
  - 2019년까지 제출 건수 대비 약 50%의 인정률을 보였던 한국무역협회(인정률 10%), 동아시아학술원(인정률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36%) 등의 인정률이 다소 하락한 추세를 보임
  - 또한, 주요 국제회의 주최기관 중 아시아 태평양 물리센터, 아세안, 글로벌녹색성장 기구에서 각각 3건의 회의가 인정되는 등 낮은 건수를 기록함

## 2. 해외시장 동향

###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 싱가포르: 코로나19 확진 사례 급증으로 2단계 경보 강화 대책 시행 및 행사 규모 축소

-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2단계 경보 강화 대책을 7월 22일~8월 18일까지 시행하여, 대면 비즈니스 이벤트와 라이브 공연 등의 행사 규모를 축소하기로 함
- 비즈니스 이벤트와 스포츠 행사는 최대 100명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50명 이하 규모의 행사는 코로나19 검사가 불필요함
  - 그 외에, 사적인 모임 규모를 5인에서 2인으로 축소했으며, 관광지의 약 25%만 운영하도록 함
- 또한, 인도네시아 여행객이나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승인을 줄이고, 최근 21일 동안 인도네시아 여행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은 7월 12일부터 싱가포르를 경유 할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 여행 이력이 있는 여행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또한, 모든 여행객은 2주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정된 숙소에 머물러야 하며, 3일, 7일, 11일 간격으로 항원 신속 검사(ART)를 받고 2주 자가격리 후에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함
- 싱가포르는 현재 전체 인구의 5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8월 9일까지 전체 인구 2/3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홍콩: 홍콩 컨벤션전시센터(HML), 백신 예방접종 캠페인으로 복권 인센티브 제도 실시

- 홍콩 컨벤션전시센터(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HML)는 7월 14일부터 도시 전역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권장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복권 인센티브와 대규모 행사의 위생 방역을 위한 방침을 마련함
  - 약 64달러 상당의 경품에는 연중 무제한 저녁 뷔페와 레스토랑 식사 쿠폰 등이 포함되며, 8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참여가 가능함
  - 그 외에도 홍콩에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이벤트의 방역을 위해 홍콩컨벤션전시센터는 소독제 도포 로봇, UV 공기 청정기 설치, F&B 비접촉 결제 머신 등을 제공할 계획임
  - 행사 운영 관계자 및 직원은 행사 장소에 입장하기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 또는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함
- 홍콩 컨벤션전시센터 디렉터인 모니카 리 뮐러(Monica Lee-Müller)는 강화된 예방 조치 하에 7월 14일~20일까지 전시회에 약 8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었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체는 국제전시와 여행산업의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말함

## ■ 말레이시아: 랑카위(Langkawi)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국경 개방과 코로나프리 목적지 홍보 계획 발표

- 말레이시아는 랑카위(Langkawi)를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Tourism, Arts and Culture Malaysia, MOTAC)의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코로나프리 목적지로 홍보할 계획을 밝힘
-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인 노어 자리 하마트(Noor Zari Hamat)는 7월 첫 주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행된 이슬람 관광센터 기업 포럼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과 섬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라 밝힘
- 현재 랑카위는 지역 전체 인구의 약 45%가 1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약 20%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코로나프리 파일럿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80%의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본격화할 계획임
- 랑카위 비즈니스 협회(Langkawi Business Association) 대표인 앤서니 웡(Anthony Wong)은 말레이시아 관광청과 랑카위행 국제선 및 지역 항공사 관계자들과의 랑카위 국경 개방을 위한 논의를 하며 랑카위 국경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 일본: 도쿄 컨벤션뷰로(TCVB), 지속가능한 행사 개최를 위한 11개 프로그램 고안

- 도쿄 컨벤션뷰로 (Tokyo Convention & Visitors Bureau, TCVB)는 비즈니스 이벤트 주최자가 사회와 환경의 책임을 지는 지속가능한 행사 개최를 목표로, 지속가능성 경험이라는 제목의 이니셔티브로 11개의 자연, 음식, 수공예, 액티비티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고안함
  - 음식을 주제로 한 체험에서는 17세기 도쿄에서 처음 생산된 일본 김 노리(Nori)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을 배움
  - 자연 체험으로 하마리쿠 가든에서 꿀을 수확하며 벌이 생태계에 하는 역할을 배우고, 꿀을 시식할 수 있음
  - 기모노 만들기 또는 천연 자재를 재활용하는 방법, 주요 유적지 도보 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있음
- 도쿄 컨벤션뷰로는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도쿄의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카즈코 토다(Kazuko Toda) 팀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의 만족스러운 도쿄 방문이 되도록 하고, 회의 주최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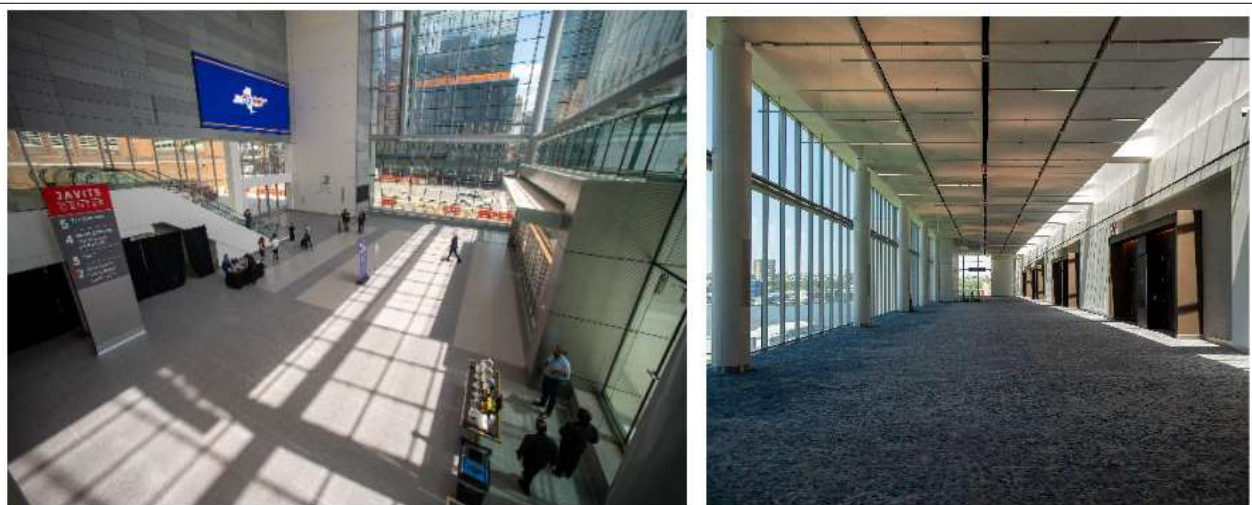


[그림 1] 도쿄 컨벤션뷰로 전경

## 나. 미주 지역

### ■ 미주: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 센터 전시·회의 공간 확장 및 최첨단 기술 도입

- 뉴욕에 있는 자비츠 센터(Javits Center)는 지난해 코로나 19로 문을 닫았지만, 이후 백신 예방접종 장소로 활용되면서 미국 최대 규모의 예방접종 센터로 운영 되는 등 뉴욕의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음
- 또한, 5월에 15억 달러(한화로 1조 7,284억 5,000만 원)를 투자해 120만 평당 피트로 센터를 확장해 새로운 전시공간과 회의공간을 마련했으며, 업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행사 환경을 조성하는 중임
  - 그 외에 위생 안전을 위한 세척 및 소독 프로토콜을 유지하기 위해 글로벌 바이오리스크 자문 위원회(Global Biorisk Advisory Council)의 GBAC STAR 인증, 정수기 대신 물병 디스펜서 배치 등 감염병 예방책을 마련함
  - 자비츠 센터는 확장된 행사장에서 무역 박람회와 컨벤션, 컨퍼런스 등 40여 개의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음
- 뉴욕의 컨벤션센터 운영사 대표인 앨런 스틸(Alan Steel)은 이번 자비츠 센터의 확장은 뉴욕 시민들에게 행사 재개의 신호로, 새로운 공간과 지속가능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운영을 개선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힘



[그림 2] 자비츠 컨벤션센터

## ■ 미주: 체로키 카지노 리조트 등 MICE 시설 대규모 확장 및 첨단 기술 도입

- 노스캐롤라이나 체로키(Cherokee)에 위치한 체로키 카지노 리조트(Cherokee Casino Resort)는 올 가을 수백만 달러 규모와 4년을 들여 확장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임
  - 이번 확장으로 725개의 객실과 7개의 스위트 룸 등 총 1,833개 객실을 추가하며, 8만 3,000평방 피트 규모의 새로운 컨벤션센터를 선보일 예정임
  - 해당 컨벤션센터에는 대형 행사장, 전시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컨벤션 센터를 오픈하면 총 11만 5,700평방 피트의 행사 공간을 갖게 됨
- 8월에 오픈을 앞둔 애리조나(Arizona)의 웨스틴 템페(Westin Tempe) 호텔은 40년 만에 애리조나에 생기는 가장 큰 호텔로, 다양한 규모와 컨셉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2만 1,000평방 피트의 실내·외 공간을 갖추고 있음
  - 웨스틴 템페 호텔의 총괄 매니저인 패티 헌트(Patti Hunt)는 휴양을 위해 찾는 여행객뿐 아니라 비즈니스 여행객들에게 웰빙과 최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리미엄 웰니스 호텔 브랜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2019년 1월 오픈을 한 메리어트 댈러스 엘런 호텔&컨벤션센터(Marriott Dallas Allen Hotel & Convention Center)는 워터스 크릭 컨벤션센터(Watters Creek Convention Center)와 연결되어 있으며 두 곳은 총 79,000평방 피트의 복합 이벤트 공간을 제공함
  - 댈러스 엘런 호텔&컨벤션센터는 기둥이 없는 전시 홀 40,000평방 피트와 대형 행사장, 야외 테라스 등이 있으며, 위생 안전을 위한 청소와 무접촉 체크인 등 방문객의 안전을 우선시함
  - 워터스 크릭 컨벤션센터는 하이브리드 회의를 위한 오디오와 비주얼 기술, LED 조명 등 첨단 기술이 구비됨



## 다. 구미주 지역

### ■ 포르투갈: UNWTO 주최, 관광과 도시의 미래 포럼 통해 지속가능성 및 도시관광 회복 강조

- 유엔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와 포르투갈 정부, 포르투갈 시 등이 주최하는 ‘관광과 도시의 미래 포럼(Mayors Forum on Tourism and the Future of Cities)’은 지속가능성, 혁신성, 포용성에 중점을 두고 도시관광을 재개할 기회를 강조함
- 2019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관광과 도시의 미래 포럼’은 도시와 관광업 관계자들에게 관광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도시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함
- UNWTO의 주라브 폴리카슈빌리(Zurab Pololikashvili) 사무총장은 포럼을 통해 도출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전략으로 관광 회복을 위한 포르투갈의 국가 지원 계획을 펼쳐야 하며, 문화, 음식,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통해 도시를 회복 시켜야 한다고 밝힘
- 페드로 시자 비에이라(Pedro Siza Vieira) 포르투갈 경제디지털 전환부(Economy and Digital Transition of Portugal) 장관은 도시와 관광객의 흐름(Flow)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볼 시기이며,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관광 명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여행 재개를 열망하고, 향후 도시를 방문할 관광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힘



[그림 3] 관광과 도시의 미래 포럼(Mayors Forum on Tourism and the Future of Cities) 참가자

## ■ 영국: 코로나19 규제 해제, 행사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및 위생 관리 프로토콜 권고

- 7월 19일, 영국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정부 규제를 해제하는 동시에 행사 메뉴 및 주최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함
  - 행사 메뉴는 참가자의 연락처를 수집 및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QR 코드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으며, 방문객이 거부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무관함
  - 행사 주최자는 행사 장소의 위생 관리 프로토콜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등 위생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행사 관계자와 합의해야 함
-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지 않지만, 정부는 밀폐된 공간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길 권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중단하지만, 주최 측과 행사 메뉴는 특정 지점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함
- 행사 참가자가 코로나19 유사 증상이나 의심 증상을 보이지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가격리와 PCR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행사를 종료해야 함



[그림 4] 영국 공식 웹사이트 코로나19 관련 안내문

## ■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EC),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행사 음식 전략 발표

- 글래스고(Glasgow)에 있는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Scottish Event Campus, SEC)는 행사 메뉴의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으며 건강한 선택'이라는 핵심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음식 전략을 발표함
-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의 전략은 2021년 11월 1일~12일까지 열리는 제26차 UN 기후 변화 회의(26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를 앞두고 시행됨
- 전략에는 행사에 제공되는 모든 농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 공정을 통해 생산되고, 식품의 최소 80% 현지에서 공급하겠다는 서약과 2023년까지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1% 미만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스코틀랜드 이벤트 캠퍼스의 디렉터인 캐서린 워든(Kathleen Warden)은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전략을 통해 이벤트 케이터링 시장을 건강한 메뉴(Healthy Venue)라는 핵심 가치로 이끌고, MICE 업계가 재개를 준비하고 하는 현 상황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밝힘

## 라. 오세아니아 지역

### ■ 호주: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 MICE 산업 지원 기금 6개월 연장

- 호주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Business Events Perth)는 2020년 8월에 시작한 서호주의 비즈니스 이벤트 섹터를 위한 지원 기금(Event Here Now) 운영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 해당 기금은 서호주에서 새로운 대면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주최자에게 참가자 1인당 최대 15달러(1만 2,805원), 행사 당 최대 10,000달러(853만 6,900원)까지 후원받을 수 있음
  - 기금 지원 주요 대상은 컨퍼런스, 전시회, 무역 박람회, 워크숍 및 세미나, 기업 회의 및 인센티브 이벤트임
-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Business Events Perth)의 CEO인 개리스 마틴(Gareth Martin)은 지난 2020년 8월 시작한 지원기금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이 긍정적이었으며, MICE 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힘
- 현재까지 총 202건과 참가자 약 100,000여 명의 행사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 기금이 MICE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한 '미팅스 2021'으로 약 596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 창출 예상

- 뉴질랜드 비즈니스 이벤트 협회(Business Events Industry Aotearoa, BEIA)는 6월 2일-3일 오클랜드에서 대면 전시회로 개최한 '미팅스 2021(MEETINGS 2021)'에서 약 5,149만 달러(한화로 약 596억 7,691만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함
- 전시회에는 총 18개 지역의 150개 업체, 45명의 호주인, 100명의 뉴질랜드 호스트 바이어, 300명의 현지 바이어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함
- 당시 코로나19 확진 사례로 폐쇄되었던 빅토리아 지역을 제외한 호주 지역에서 참여한 현지 바이어 50여 명은 행사 전후 뉴질랜드 섬을 투어하는 팸투어를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함

### 3. 국내시장 동향

#### ■ 한국 MICE협회: MICE 명칭 개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TF팀 구성

- 한국 MICE협회는 관광진흥법상 MICE를 통칭하는 명칭인 국제회의업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전담(TF)팀을 구성함
- 현재 MICE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 산업법상 명칭은 ‘국제회의’로 돼 있어 MICE 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 육성에 한계와 국내 행사 지원 등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한 지원이 어려움
- 따라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MICE업’, ‘비즈니스 이벤트’, ‘회의업’ 등의 새로운 명칭이 거론되고 있으며, 법률상 국제회의나 전시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새로운 명칭이 고안되면, 기존 국제회의시설·기획업에서 제외되었던 통·번역, 의전·수송, 인쇄·디자인업과 서비스업종으로 정보기술(IT) 등 다른 업종의 MICE 분야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이상열 한국MICE협회 법개정 TF 위원장은 명칭 변경과 업종 추가는 MICE 산업의 지난 25년간의 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장을 대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기 적절한 시기라 말함



■ 인천: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영종 국제도시 파라다이스 시티, 2021 한국관광박람회(KITE 2021) 개최

- 6월 29일~7월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영종 국제도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2021 한국관광박람회(KITE 2021)’가 개최됨
  - 2021 한국관광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역 CVB와 관광·MICE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한 대규모의 한국관광 통합 박람회임
  - 본 행사는 MICE, 여행, 럭셔리 관광, 의료 웰니스 관광으로 세분화했으며, 각각 ‘코리아 MICE 엑스포(KME)’, ‘한국여행박람회(KTM)’, ‘코리아 럭셔리 트래블마트(KLTM)’,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 박람회(KMWTF)’으로 나누어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됨
-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한 외래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한 ‘방한 안심 여행 캠페인’, 얼리버드 항공권 등을 판매하는 ‘랜선 한국 여행 상품 판매’, ‘한류스타 라이브 여행토크쇼’, ‘온라인 라이브 팸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임
- 포스트 코로나 시장 선점을 위해 열린 한국관광박람회에는 세계 6개국 887개 기업이 셀러로 참여했으며, 43개국 2,196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3,52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짐



[그림 5] 2021 한국관광박람회 포스터

## ■ 경기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기도 맞춤 5개년 '경기도형 중장기 MICE 육성방안' 수립

- 7월 29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도 맞춤형 MICE 발전 전략을 위한 향후 5개년 '경기도형 중장기 MICE 육성방안'을 수립함
  - 주요 과제는 '경기도 MICE 산업 현황 분석', '국내외 MICE 산업 동향 및 세계 트렌드 분석', '경기도 MICE 산업 비전과 정책 방향', '경기도 MICE 중장기 발전 세부 추진 전략' 등으로 구성됨
- 특히,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흐름과 UN-SDGs(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 강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육성 전략 및 준비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5년간 도에 특화된 MICE 육성 전략을 도출하고, 코로나 19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MICE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 경기도: 킨텍스(KINTEX)와 코트라(KOTRA), 국내 최대규모 '202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

- 7월 27일~30일까지, 킨텍스(KINTEX)와 코트라(KOTRA)는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산업 국제 전시회인 '2021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21)'을 개최함
  - 행사는 식품기기와 식품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식품기기 분야에서 102개사, 식품 분야에서 358개사가 참여하여 국내외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함
-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것과 달리 올해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등록을 한 업계 관계자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방문이 어려운 해외 바이어를 위한 비대면 원격 방문 시스템을 도입해 '아바타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과 부스 내 제품 확인, 비즈니스 미팅 및 상담 등이 이뤄짐
- 부대 행사로는 국내외 우수 식품 발굴 및 소개를 위한 '서울 푸드 어워즈 2021', 참가기업 제품 판매 및 해외 홍보 지원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유통바이어 상담회' 등이 진행됨

## ■ 경상도: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 국제회의 복합지구 대상지 신청 계획 발표

- 7월 25일, 경주시는 MICE 산업 메카를 목표로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변을 국제회의 복합지구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임
  -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회의 시설과 그 주변에 문화산업, 숙박, 쇼핑, 관광 및 교통 등이 집적된 구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승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음
-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으로, 교통유발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됨
  - 현재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대구(EXCO)와 부산(BEXCO), 인천(송도컨벤시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경기 고양(KINTEX)이며, 정부는 추후 5곳을 추가 지정할 예정임
- 또한,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중심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유치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이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컨벤션센터 시설 증축 및 개선 등 준비작업에 임할 계획임
  - APEC 정상회의는 21개국 회원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현안, 비전, 발전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선례가 있음



[그림 6] 경주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하이코) 일대 전경

## ■ 경상도: 부산 관광공사, '2021 Young MICE단' 통해 MICE 산업 인재 육성과정 지원

- 7월 5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지역 MICE 인재 육성을 위한 '2021 Young MICE단' 발대식을 부산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함
  - 부산관광공사는 'Young MICE단'은 2013년에 시작해 9년째 MICE 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2021 Young MICE단에 선발된 부산 소재 대학교 3~4학년 학생 15명은 7월부터 'MICE·호텔분야 취업전략특강', '현직자 취업 상담 Day', 'MICE 이론교육', '관광 일자리 상담', 'MICE SNS 홍보활동'에 참여함
- 특히 이번 활동은 Young MICE단이 행사 기획부터, 장소 섭외, 홍보, 참가자 모집, 현장 운영 등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됨
-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사전 교육과 연계된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MICE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부산 지역 인재의 취업 경쟁 역량을 높이려 한다고 밝힘



## ■ 전라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MICE뷰로 지정으로 MICE 산업 활성화 노력

- 7월 6일, 전라북도는 MICE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전라북도의 MICE 전담기구인 ‘MICE뷰로’로 지정함
  - MICE뷰로의 역할은 유치 가능성이 보이는 국제회의를 발굴하고 개최하며, MICE 마케팅 진행 및 산업 기반 조성, MICE 정보 수집·제공, 전국 MICE 기관 교류 등의 활동을 수행함
- 전라북도는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전북-서울 MICE 공동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유니크베뉴 5개소를 선정하여 MICE 회의 가능 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함
- 또한, 2021년 하반기에는 MICE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도내 컨벤션 시설을 둘러보는 팸투어와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9월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만금 오토 & 레저캠핑쇼’를 개최할 예정임
- 윤여일 전라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MICE뷰로 지정을 계기로 전라북도 MICE 산업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MICE 산업이 되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 밝힘

## ■ 전라도: 여수시, MICE 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YEOSU MICE’ 홈페이지 오픈 계획

- 여수시는 8월 1일부터 지역 내 컨벤션 시설을 소개하고 MICE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YEOSU MICE’ 홈페이지를 오픈할 계획임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온택트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시·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여수시는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함
- 홈페이지에서는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등 여수에 있는 컨벤션시설 16개를 VR로 답사할 수 있으며, 개최시설 별 수용 가능한 인원수 등 컨벤션 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관광문화 체험 프로그램 안내부터 MICE 인센티브 신청까지 행사개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

## ■ 대전 대전컨벤션센터(DCC) 일대 국제회의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 7월 2일, 대전시는 대전컨벤션센터(DCC) 일대를 국제회의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
  -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일대 230만 $m^2$ 를 2022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대전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을 추진한 바 있음
- 협의체는 대전컨벤션센터를 비롯한 회의 개최시설부터 호텔 및 백화점과 같은 상업 집적시설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한밭수목원과 같은 유니크베뉴 등 MICE와 관련된 산업영역 전반을 아울러 구성됨
- 협의체는 '국제회의 공동유치', '대전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전략 수립 및 마케팅방안 구축',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아이템 발굴', '방문객 친화 환경 조성', '회의시설-집적시설 간 협력'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대전시는 2022년 완공될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에 맞춰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방침으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기존 대전컨벤션 센터가 중부권 최대규모의 MICE 인프라가 조성되며 발생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 대전은 2022년 140개국 도시·국제기구·국제 비정부기구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지방정부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 제주도: 제주컨벤션뷰로·라마다프라자 제주, 제1회 그린 MICE 포럼 개최

- 7월 6일,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는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1회 ‘그린 MICE 포럼’을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했으며, 제주컨벤션뷰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함
- 그린 MICE 포럼은 ‘제주 그린 MICE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MICE 산업을 달성하기 위한 ‘GREEN MICE, 제주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됨
  - 제주 그린 MICE 캠페인은 행사 개최에 필요한 교통·호텔·음식 등 여러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행사 진행을 유도하며, 대표 사업으로 ‘제주형 그린 MICE 매뉴얼 배포’, ‘ISO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제주 그린 MICE 포럼 개최’, ‘그린 MICE 캠페인 SNS 이벤트 개최’, ‘제주 지속 가능한 MICE 홈페이지 제작’ 등이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MICE 산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 인하대학교 김종대 교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주도하는 데 있어 MZ 세대의 역할을 강조함
- 또한,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공정무역 제품 사용, 텀블러 사용과 그린 MICE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등 지역사회에 친환경 가치 환원을 이끌어내고자 함
- 김승배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은 그린 MICE 포럼을 통해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국내 대표 그린 MICE 도시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제주도: 제주컨벤션뷰로,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팅 테크놀로지 자원 및 스마트 작업환경 지원사업 실시**

- 제주컨벤션뷰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도내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미팅테크놀로지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스마트 작업환경 지원 사업을 실시함
  - 지원대상은 국제회의업, 전시기획 및 행사대행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제주도 내 있어야 하고, 최근 5년간 50명 이상 참석하는 MICE 행사를 3회 이상 수행한 업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함
-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카메라, 스피커와 같은 온라인 회의시스템과 키오스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등 행사관리 소프트웨어와 MICE 행사 진행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됨
- 스마트 작업환경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전자결재, 그룹웨어와 같은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 구축과 기업 클라우드 구축비용, 그 외 MICE 행사 진행 전반에서 활용되는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됨